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9월 8일(금)
--(음력 7월 24일)--
Пятница
8 сентября 2023 г.
№ 35 (1205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3일(일)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영광(슬라와) 광장에서 불멸의 성화에 헌화식이 있었다. (관련 기사 3면 게재) (사할린 주정부 제공)

2023년 9월 사할린 지역 의회의원 선거에 1,000명의 후보 출마 예정

9월 10일(일) 사할린주 두마의원 보궐선거와 11개 지역구 의회의원 선거가 시작된다.

사할린에 총 155개의 지역구 선거위원회가 운영된다. 약980명의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된다고 지역 선거위원회 위원장인 워토리야 체르카소가 발표했다.

"지방 선거에서는 전통적으로 후보자 간 경쟁이 치열하다. 올해는 약 1천 명의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 2018년의 주요 대선거 주기와는 대조적으로 경쟁율이 상당히 높다. 지역구 선거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이웃을 선출하는 것이 항상 흥미롭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심각한 갈등 상황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지역에 조직된 선거위원회가 업무를 이행하여 적극적으로 감독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선거위원장이 말했다.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자, 정당, 사회 활동가 대표들이 감시한다. 투표소에는 경찰이 보안을 담당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금속탐지기를 설치한다

전 러시아 박물관 포럼, 사할린에서 개최

9월 3일(일) - 5일(화)까지 사할린에서 전 러시아 박물관 포럼 <현대 세계의 러시아 박물관, 사업의 전환>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 칼리닌그라드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약 10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그중 러시아를 대표하는 박물관들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러 왔다.

포럼은 전체 확대회의를 연 가운데, 포럼은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의 <사할린주 박물관의 역사, 현 상황 및 전망>에 대한 발제로 시작됐다.

"최근 사할린주에서 박물관 활동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변화되었다. 우리 정부는 국립 박물관뿐만 아니라 지방의 지역 박물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하다. 나라에 대한 사랑은 소박한 향토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항상 말한다."고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말했다.

사할린주 박물관 협회는 사할린 박물관들의 현존하는 문제들을 풀고,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고 사할린 박물관 협회 회장이자 '사할린 섬' 책 박물관 관장인 예브게니아 피르소와가

협회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회의에서 총 12개의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러시아 인류학 박물관 관장인 율리아 쿠피나가 경험을 공유했고, 국립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현 상태에 대해 알렉세이 복다노브 관장이 발표했으며, 사라토프의 라디체브 국립 미술관 소장품 관리장인 나탈리아 야쿠니나는 박물관 소장품 복원에 따른 전문 교육기관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체회의는 12개의 협약 체결 조인으로 마무리됐다.

9월 5일(화)에는 <20세기 -21세기 전쟁들에 대한 기억의 보존 및 실재화 문제>, <박물관에 러시아어와 문학: 보존과 대중화>, <지역 간 전시회 기획>, <복원과 보존의 문제>를 주제로 논의하는 일정이 이어졌다. 포럼의 일환으로 몇 개의 기획 전시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됐다.

박물관 포럼의 연장선상으로 제5회 사할린주 지역 박물관 축제 <21세기의 박물관>이 9월 5일(화) - 7일(목)까지 사할린에서 열렸다. 이 축제의 일환으로 '2023-박물관 기획' 경연 참가자들의 기획 발표, 견학, 전시회 개설, 지역 박물관들에서 강연이 이어졌다.

단신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

오는 9월 9일(토)에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 축제에 시민들을 초대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도시의 날로 9월 2일에 축하 행사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큰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 9일로 연기하여 행사를 개최한다. 태풍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축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고 시행정부가 전했다.

9월 4일에는 클래식 음악 축제가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립 교향악단이 주 정부 청사 건물 앞에서 이틀간 공연이 펼쳐졌다.

9월 9일 시공원에는 민족문화축제, '드론 무리' 쇼, 김치축제, 가요 축제, 가정 축제, 로봇 축제, 브레이크댄스 축제, '개구쟁이들이 놀아' 아동 축제 비롯 다양한 활동 교실이 열린다. 그의 전시회, 공연 등 행사들은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진행된다.

저녁 7시에는 승리 광장에서 <사랑하는 도시에 바친다> 축제 공연으로 저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후 초대된 스타들인 율리아 사위체와 가수 '요르니'그룹의 공연이 이어지고, 불꽃놀이로 축제 마무리를 장식한다.

9월 9일 토요일에는 '돔-토르고블리' 옆 행사장에서 대규모 박람회와 시식행사로 <물고기 섬> 축제가 진행된다.

2023 극동 법률 포럼 사할린에서 개최

9월 5일(화) - 6일(수) 극동 법률 포럼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열린 가운데 저명한 법률학자, 사법부 및 정부기관 대표, 공증인,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틀간 이어진 행사에 법률단체 지도자들과 사업 분야의 대표들이 현실적인 법적 문제들과 지역 내에서 사업 연계 강화를 논의했다. 이에 사할린주 제1부지사 세르게이 바이다코브가 포럼 참가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했다.

포럼 프로그램에는 토론, 전문가 세션, 실습이 포함됐다.

주간 사할린의 질병 감염 상황

사할린주 소비자보호감독청이 사할린의 감염병 상황을 밝힌 바에 따르면 급성장염, 엔테로바이러스,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병원 박 폐렴 및 코로나 19바이러스가 사할린 지역에서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주간 지역에 따라 급성 장염이 122건,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이 149건, 급성 호흡기 감염이 797건, 병원 박 폐렴이 29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통제가 유지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으로 보고됐다.

지난주에는 사할린주에서 진드기에게 물리는 사례(10개)가 아니라, 오히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의료기관에 기록되었다.

새고려신문

2024년 상반기 신문 구독 시작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4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인 만큼 우리에게 각 독자가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46,98루블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지난주 금요일 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월평균 강수량 100% 내려

8월 31일 - 9월 1일 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내린 폭우로 월평균 강수량의 100%인 104mm의 비가 내렸다. 도시 내 작은 강인 로가트카 강, 수수야 강, 프리고로드니 강과 베지만니 강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도시의 여러 동네가 침수되었고, 일부 시민들은 집에서 대피해야 했다.

도시의 기반시설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여러 곳에서 전기도 잠깐 끊겼고, 도시의 서쪽에 있는 많은 건물들의 지하층들에 빗물이 차면서 양수기로 물을 빼는 작업이 우선 진행됐다.

사회시설 중에서는 제23 중학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도시의 가가린 휴식공원이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산책로와 축구장, 테니스 코트가 씻겨 내려가고 쓰레기와 흙이 주요 오솔길로 쓸려내려갔다. 9월 2일 도시의 날을 기념하는 모든 축제 행사가 연기되었고, 9월 1일 - 개학 행사 모두가 취소되고 9월 4일로 연기됐다.

9월 1일 바로 태풍 후 처리본부가 조직되어 피해 규모 검토에 나섰다.

사할린 주정부는 시민들의 피해 신청을 받고, 복구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일부 배상 위로금을 배당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직후 복원 활동과 도로망 청소가 시작되었고, 이에 약 80개의 차량과 장비를 이용했다.

9월 2일 시민 천여 명의 자원 봉사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을 찾아 쓰레기를 치우는 등 공원의 빠른 복구에 나섰다. 봉사자 중 사할린주 한인협회,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회원을 비롯해 사할린 한인 2-3세가 많았다고 전해진 가운데 피해 신청서는 9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본사 기자)

유즈노사할린스크, <레퀴엠> 전시회 개막

일본 군국주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획 전시 '레퀴엠'이 9월 2일(토)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 기념박물관에서 개막됐다고 역사기념 박물관측이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사할린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문화고문서부와 사할린주 국가역사기록보존소,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의 협력으로 개최되었다.

이 전시회는 '승리' 기념박물관 재단에 전달된, 해제된 기밀문서 자료들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사할린주 부서에서 우리에게 넘겨준 기밀이 해제된 문서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에서 한인들의 고통,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한때 강제로 사할린에 끌려왔지만 이제는 우리와 친숙하고 사랑하는 토착민이 된 한인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 장관 논나 라브리크가 말했다.

<레퀴엠>- 평안과 명복은 1945년 8월 남사할린에서 일본군의 학살을 피하지 못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영혼이 바쳐야 할 추념행사이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2차 세계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추모합니다. 약 2,700만 명의 소련 국민이 승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쟁에 참전한 분들과 후방 전선에서 수고하신 분들께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보존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레퀴엠>



전시회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였던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세계 평화를 보존하며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블라디미르 노소브 유즈노사할린스크 주재 러시아 연방 외무부 대표가 말했다.

1945년 8월 11일 유즈노사할린스크를 향한 공세 작전이 시작되면서 일본 군국주의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마을과 도시에 본격적으로 위협을 가했다. 일본인들은 아내와 아이들을 대피시켰지만 방위대원들은 마

에 남아있었다. 주민 중 일부가 소련의 적위대가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환영할 것이라 예상한 일본군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확신하건데 이번 전시회 개막은 사할린주의 획기적인 행사입니다. 이 기획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전시회는 인문학 지식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할린 한인들에게 이 전시회는 사할린 한인들의 삶 속에 오랫동안 존재했고,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인간의 비극이라는 주제를 제시한 전시회입니다. 이는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한 가족, 한 세대, 국가 전체의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불행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고통스럽게 가슴을 태우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비극적 역사를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라고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말했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소련 국민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요조르스코예 마을에 참전용사, 조종사, 국경수비대, 선원들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레퀴엠>전시회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는 우리의 위대한 애국 활동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사할린주 국가보안기관 재향군인회의 대표 알렉산드르 이반차 회장이 말했다.

기념식은 전시회 첫 견학으로 마무리되었다. 해당 견학은 '승리' 박물관 및 기념 단지 견학 가이드 인 콘스탄틴 코스텐코가 진행했다.

(역사기념 박물관 자료에서)

이모저모

그림 전시회 <원작, 복제, 모방> 개최

9월 6일(수)부터 사할린주 미술 박물관과 사라토프의 알렉산드르 라디체브 국립 미술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로 <원작, 복제, 모방> 전시회 활동이 사할린주 미술박물관에서 시작됐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부가 전했다.

이번 전시회는 예술 분야에서 복제와 모방의 실제적인 문제를 주제로 기획 전시한다.

수 세기 동안 예술은 따질 수 없는 가치와 인류 문화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남아있지만 항상 원작과 모방작의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은 19세기-20세기 서유럽의 회화, 그래픽, 조각상, 장식미술을 관람할 수 있다.

전시회는 예술 작품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원작의 가치와 예술 방면에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게 한다.

«Оригинал. Копия. Подделка?» откры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 6 сентя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начала работу выставка «Оригинал. Копия. Подделка?» из фондов Сарат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имени А.Н. Радищева и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стров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ыставка представляет проект, посвященный актуальной проблеме подделок и копий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а. На протяжении веков искусство оставалось невероятно ценным и важным аспектом челове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но вопросы подделок и аутентичности всегда оставались на первом плане.

Посетителей ждет путешествие в XVI-XX века через западноевропейскую живопись, графику, скульптуру и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е искусство. Выставка не только демонстрирует произведения искусства, но и позволяет задуматься о ценности истин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

также об этике и морали в контексте искусства.

유즈노사할린스크 신공항 터미널에 북크로싱 위한 책꽂이 설치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공항이 러시아에서 인기를 끄는 북크로싱(자유로운 책 유통)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신공항 터미널 사무소 2층에는 적당한 책꽂이가 설치되어 있어 누구나 책류 후 책을 남겨두거나 이륙 전 책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신공항 터미널 측이 전했다. 가장 먼저 공항의 직원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고, 공항 전문가들이 집의 서고에서 좋아하는 책들을 가져와 책꽂이를 채웠다. 책꽂이에는 문학, 대중적 과학, 다큐, 문학 학습의 출판물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었다. 남겨둘 책들 중엔 러시아어를 비롯해 영어 도서도 있다.

주최 측은 어린 여행객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가운데 다채로운 동화집과 시집, 수수께끼 책도 비치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참가자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승객들 중에는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첨단 기기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이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북크로싱은 신공항 단지 방문자나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문학으로 타인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활동에 누구도 무관심하지는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라고 '동부 지역의 관문' 주식 회사의 이고리 슈베이코 회장이 말했다.

Polka для буккроссинга появилась в новом терминале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рупнейший терминал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тал участником популярного в России движения буккроссинга.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операционного зала разместили небольшую полку, гд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оставить после перелета или забрать с собой в путь книгу бесплатно,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нового аз-

ровокз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ервыми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ись сотрудники комплекса. Специалисты аэровокзала пополнили стеллаж любимыми произведениями из домашних библиотек. Здесь нашлось место для издани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научно-популярной,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учебн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о и на английском.

Уделили внимание организаторы и юны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ам. Для них на полку выложили красочные сборники сказок, стихотворений и загадок. Такое решение позволило охватить акцией большее число участников разных возрастов.

«Среди наших пассажиров много книголюбов. Причем многие отдают предпочтение именно бумажным носителям,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Буккроссинг — это возможность 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аэровокз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для сотрудников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овыми авторами, най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помочь незнакомцам подружиться с литературой. Уверен, наша акция никого не оставит равнодушным»,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Восточные Ворота Страны» Игорь Шубейко.

남 사할린 해방 소련군 전투, 홉스크 언덕에서 재현

홉스크 기념관 부근 언덕에서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해방과 제2차세계대전 종전일을 맞아 '1945 국경'이라는 1945년의 대규모 역사적 사건의 극화 재현이 조성됐다고 홉스크 시장 드리트리 류브치노브가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이 행사는 청소년사관학교 생도들과 홉스크의 운동선수들, 청소년 국경 수비대, 홉스크시 스포츠 및 청년정책과 전문가들이 '우등생들의 운동' 러시아 유-청소년 운동과 올드스кул즈(Oldskullz)포인트볼 클럽과의 협력으로 준비했다.

재현 공연 시 1945년 8월 20일 마오카(현재 홉스크)마을 습격 후 마오카-토요하라-오토마리의 길을 따라 후퇴하는 일본을 추격하기 시작한 113 소총부대의 전투 장면을 재현했다.

(8면에 계속)

일본 군국주의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날, 사할린에서 기념

9월 3일(일)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한 가운데 러시아 연방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제브와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이며 극동 연공구 러시아 대통령 전권대표 유리 트루트네브,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극동 지역들의 수장들이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주요 행사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영광의 광장에서 진행됐다. 불멸의 성화 헌화식에는 대조국 전쟁 참전용사들과 군장성들, 정부기관 대표들, 사회 및 종교계 지도자들이 헌화에 나섰고, 이후 군대행진이 진행됐다.

"우리는 파시즘으로부터 세계를 구한 영웅들과 끊을 수 없는 연대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영웅들은 많은 국가의 국민들을 위해 자유와 창조적 발전과 번영과 행복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께서는 용맹과 불굴의 정신과 강한 정신력과 진정한 애국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역사의 교훈은 특히 중요합니다. 20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들이 고개를 들어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인류를 끌어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0년 전과 같이 우리의 거룩한 과업은 가장 단호하게 이에 반격하고,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라고 청중들에게 드미트리 메드베제브 부의장이 연설했다.

유리 트루트네브 부총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은 승리를 위해 큰 공적을 세웠고, 수백만 소련 국민의 생명을 내어주고 평화와 자유와 조국의 독립을 지켜냈으며, 나치즘으로부터 지구를 구해냈습니다. 우리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의 조국을 수호하신 영웅들을 언제나 기억하며 공경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서는 이에 대해 잊으려 하고, 소비에트 장병들의 업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언어, '러시아'라는 단어를 역사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병들은 다시금 최전선에 나섰

으며, 적들은 러시아의 발전을 중지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군사적 영광의 날은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해방시킨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입니다. 그분들은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린 분들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기억은 항상 우리의 가슴에 있습니다. 이제서야 그때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진실 왜곡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치즘의 부활과 러시아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웅심과 강한 정신력과 불굴의 의지가 우리 국민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현재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이 돈바스에서 조국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들을 지지하며, 승리하여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립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도서관과 박물관 등 문화기관들에서는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남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해방을 상기시키는 행사들이 진행됐고, 역사적 기억 보존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이날 사할린과 쿠릴 전 지역에서도 축제 행사가 펼쳐졌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전이 사할린과 쿠릴에서 전개된 것과 일본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소비에트 장병 2천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친 것을 기억한다.

(사할린 주정부 제공)

주 향토박물관, 한인 학살 주제로 강연 개최

역사적 기억은 모든 국가, 국민, 국가 정체성의 기초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복하든, 비극적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역사의 과정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 사건에 대해 국민의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일 뿐이다. 사할린 한인에게 있어 민족의 역사는 매우 중요하며, 이는 사할린 한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흥미로운 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날인 9월 3일, 사할린 향토박물관에서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 속 학살 사건들을 두고 한 강연이 열렸다.

강사는 사할린한인사 연구로 잘 알려진 진 울리아 준박사로 이날 '사할린한인들에게 남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의 의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였다.

강연은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행사장은 가득 찼으며, 러시아인 청취자들도 많았다. 이들은 일제 군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 역사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받았다. 강연에서는 사할린 지역에서 전쟁 중에 자행된 잔혹한 범죄와 관련된 사할린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이 공개됐다.

1945년 8월, 사할린과 쿠릴열도가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퇴각하는 일본인들은 미즈호(현 포자르스코예) 마을과 카미시스카(레오니도보) 마을에서 조선인들을 학살했다. 그리고 우시로 마을에서는 '조선 스파이'라는 거짓의 혐의를 씌워 처형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밝혀졌다.

1945년 8월 며칠에 걸쳐 발생한 미즈호 마을 학살은 사할린의 잘 알려진 지역 연구가이자 작가인 콘스탄틴 가포네프가 쓴 책 '미즈호 마을의 비극' (1993년)에도 반영되어 있다. 카미시스카의 사건은 블라디미르 그린이 쓴 '아직도 아물지 못한 쓰라린 상처'책의 주제였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후 사할린 보안국이 90년대에 잠깐 이 학살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던 적이 있어서 이 두 분의 저자는 이 자료를 보고 작업할 수 있었다. 나중에 이 자료가 다시 기밀되었고, 2021년에 사할린주 보안국이 학살 사건들에 대한 서류를 기밀 해제하여 주향토 박물관에 넘겨져진 박사가 이 자료 연구에 나섰다.

문학적 내러티브는

사실의 역사적 정확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위 저자의 책에는 일부 실제 특정 사실과 정확한 수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수사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잔인한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확인되었고 피해자 수가 어느 정도 확인되었지만 진 박사의 조사문서에 표시된 수치는 용의자 심문 결과에서 가져온 것이므로 역사적 정확성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미즈호 마을 학살 피해자의 정확한 수는 파악되지 않았다. 진 박사는 미즈호 학살 사건 사망자 수가 27명이 아닌 30여 명을 초과하지 않을까 라고 한다.

그는 강연 중에 기밀 해제된 문서에 아직까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다고 하였다. 그중 하나는 우시로 마을 사건이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조선인 한 명을 간첩죄로 거짓 고발하고 그를 배신한 적으로 지목해 처형하였다.

주의 깊게 강의를 청취한 관객들은 이날 얻은 정보를 잘 기억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의 희생자들에 대한 기억과 그 비극적인 사건들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진짜 사실들이 전쟁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상호이해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취재: 드미트리 포구다예브/글, 배순신/사진)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 지방 순회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천영곤)가 최근에 사할린의 중서북쪽 지방한인회를 돕기 위해 여러 지방 행사에 적극 참여했다.

8월 27 <사할린 한인>회의 천영곤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일부 회원들이 포로나이스크를 찾아 '도시의 날' 행사장에서 찐세(왕만두) 요리교실과 '한복 만들기', '종이접기', '한글 쓰기' 등 활동교실을 열었다. 모든 활동교실들은 인기가 많았고 이날 시민들에게 찐세 300개, 컵라면 150개를 나누며 시식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할린 한인> 시한인회의 동포가수인 우 미하일과 서 마리나는 아름다운 한국 노래로 시민들의 기분을 한층 돋우었다. <사할린 한인>회 임원인 안수학 사할린주택원도협회장의 지도하에 태권도 시범도 있었고, 또한 '사할린 한인'회에서 한인 1세들에게 선물세트도 나눠 드렸다.

포로나이스크 시민인 이 조야(62

세)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한민족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가 이렇게 많은 도시의 날 행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포로나이스크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복 만들기 활동교실에 참여했는데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통 민족 의상을 '저고리'라고 부르곤 했는데 이번에 이게 '한복'이란 설명을 들었어요. 앞으로 집에서 손주들과 꼭 한복을 만들어볼 거예요. 라면도 먹어봤는데 정말 특이한 맛이네요. 그리고 한국노래를 부르는 젊은 동포가수들이 너무 예쁘고 노래가 온 광장에 울려 퍼져 감정이 벅차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물론 우리도 노래를 따라부르기도 했죠. 포로나이스크에서는 이번 행사를 잘 기억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에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선사한 모든 <사할린 한인>회 회원들에게 진



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요리교실 진행을 맡은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의 김 스웨틀라나는 "사실 행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우리 요리교실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질 것이라 생각도 못했어요. 한민족 음식으로 사할린을 놀라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직접



해보기도 했고, 누군가 집에서 인터넷을 보고 한국 요리도 해봤는데 사할린 한식 맛은 약간 다르잖아요. 요리교실을 통해 각 참가자와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고 재미있었어요."라며 소감을 말했다.

9월 1일에 <사할린한인>회 팀은 스미르니흐 마을 행정부의 초대로 '마을의 날' 행사에 참가했다. 여기에서도 역시 두 종류의 파전 요리교실,

한민족 공예 활동교실, 동포가수들의 공연으로 지방 축제행사에 새로운 색깔을 추가했다.

스미르니흐 구역 행정부 직원인 박 안젤라는 "<사할린 한인>단체와 협력하여 마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덕분에 행사 규모가 커졌다. 물론 한식 요리교실이 인기가 많았고, 밝고 독창적인 한국 문화에 젖어들게 하는 '한글'창작회에서 활동교실을 진행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라고 하였다.

9월 2일에는 <사할린 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임원들은 위스토크 한인회의 초대를 받아 위스토크 마을을 찾았다. 한인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두 단체 회원들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사할린 한인>회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오는 9월 16일 위스토크 마을의 날에 참가할 것을 약속했다.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의 유영희, 배영희) (사진: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ыставка «Реквием» откры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Реквием», посвященный жертвам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открылся 2 сентября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Выставка состоялась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и содейств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Основой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выставки стали рассекреченные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переданные в фонды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ссекреченн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которые нам передало Управление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Я ознакомились с документами, в них – бол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материалы о жестокости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Сегодня у нас у все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историе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гда-то насильно привезенного на Сахалин, но ставшего ему родным, дорогим и близким», – 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Реквием – покой, успокоение, именно этого заслуживают души безвинно убитых людей, которых не пощадила агрессия японской военщины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вято чтят память о погибших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Почти 27 миллионов советских граждан отдали свою жизнь за победу. Почет и уважение участникам войны и труженикам тыла.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назвал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вды о войне нравственным долгом. Убежден, что выставка «Реквием» внесет достойный вклад в сохранение памяти 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 самой жестокой войне человечества и позволит вновь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и поддержания мира на планете», –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ладимир Носов.

С начал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и 11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японский милитаризм проявился в полной мере в деревнях и городах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Хотя японцы эвакуировали своих жен и детей, члены оборонных отрядов оставались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читая, что часть на-



ФОТО: ПРЕСС-СЛУЖБА ММК «ПОБЕДА»

селения приветствует приближение Красной Армии, японцы устроили кровавую расправу над мирными жителями.

«Несомненно, открытие выставки –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нный проект заинтересует многих, и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источником для получения гуманитарных знаний. 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 выставка, которая подняла тему человеческой трагедии, которая была, есть и очень долго еще будет в жиз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Это боль не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а боль семей, целого поколения, целого народа. Данная боль, к сожалению, со временем не утихает, она все больше болит и жжет в груди. Наша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в том, чтобы наши наследники сохранили и передали нашим потомкам эту трагедию», – поделилась президент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В ознаменование Победы советского народа над японским милитаризмом мы установили памятник ветеранам, летчикам, пограничникам, морякам в селе Озерское. Мы благодарны организаторам выставки «Реквием». Это поможет нам в нашей большой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работе», – ска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енсионеров (ветеранов)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Александр Иванча.

Завершилась торжественная часть первой экскурсии по выставке. Ее провел Константин Костенко, экскурсовод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Победа».

Посетители узнали правду об оперативной обстановке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и злодеяниях японской военщины, которая махровой плесенью проросла в души и сердца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а.

Выставочный проект доступен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по 1 октября 2023 года.

В память о 27 невинно убитых корейцев

3 сентября у одноименного памятника вблизи с. Пожарского состоялся митинг в память о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27 корейцев – мирных жителей села Мидзухо уезда Маока.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18 мужчин, 3 женщины и 6 детей были убиты группой японцев под предводительством отставного унтер-офицера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Морисита Ясуо, заподозрив сельчан в симпатиях к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которая вела успеш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вглубь Сахалина.

На месте бывшего села Мидзухо в 1996 году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памятник.

– Каждый год мы встречаемся на этом месте,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огибших жителей села Мидзухо, были убиты 27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детей, – сказала президент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ак Сун Ок. – Память о них будет вечно жить в наших сердцах.

В митин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Артем Круглик и неравнодушные жители, сообщается в Те-



леграмм-канале мэра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митрия Любчинова.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егодня, когда мы отмечаем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ельзя не вспомнить те траг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произошедшие в далёком 45-ом году, о которых мы будем помнить всегда».

В память о тех жертвах ежегодно проводятся митинги. К подножию мемориала возлагают живые цветы и детские игрушки.

О значени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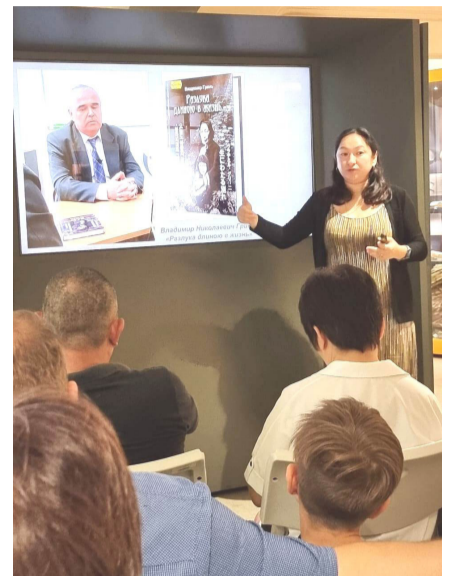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является основ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кажд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арода и нации. И это лишь одна из многих причин, по которой каждый должен помнить о прошлом своего народа, о событиях, влиявших на ход и развитие истории независимо от того, являются ли они счастливыми или трагичными.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стория своего народа имеет очень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она вызывает интерес не только 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иаспоры.

3 сентября, в День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в Сахалинск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состоялась тематическая лекция, посвящённая памятным событиям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Лектором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а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ин Юлия Ивановна, являющаяся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автором научных трудов по данной тематике.

Лекция «Значение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ызвала оживлённый интерес, зал был полон, причем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русских слушателей. Они получили развернутый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о том, что же на самом деле значит для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освобождение от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В ходе лекции были раскрыты трагические страницы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связанные с жестокими преступлениями, совершенными в военно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Так в августе 1945 года в период начала освобождения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и, отступающие японцы совершили массовые убийства корейцев в селах Мидзухо (ныне Пожарское) и Камисиска (Леонидово), а также казнь «корейского шпиона» в селе Усиро по ложно выдвинутому обвинению.

Резня в селе Мидзухо, произошедшая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августа 1945 г., была отражена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публицистической книге «Трагедия деревни Мидзухо» известным сахалинским краеведом и писателем Константином Гапоненко (1993 год). События в Камисиска в своей книге описал писатель Владимир Гринь. Оба писателя смогли получить сведения из архивов КГБ в краткий период, когда доступ к этим архивам был доступен в постперестроечный период. Затем доступ к ним был вновь закрыт, а в 2021 году УФСБ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секретила эти материалы и передала их в областную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В связи с тем, что литературное повествование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сторическую достоверность фактов, некоторые подлинные конкретные факты и цифры не нашли отражение в книгах вышеуказанных авторов. Как историк Юлия Дин взяла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по проведению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в отношении этих трагич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В ход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ледстве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установлены главные подозреваемые в совершении зверских убийств,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количество установленных жертв. Однако, по словам Юлии Ивановны, цифры указанные в документах следствия не имеют исторической точности, так как взяты из результатов допроса подозреваемых. В связи с этим точное число жертв резни в деревне Мидзух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установлено. Историк Дин предполагает, что количество убитых превышает 30 человек, а не 27, как следует из материалов следствия.

В ходе своей лекции она поделилась также, что в рассекреченных документах есть сведения дотоле неизвестные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Речь идет об убийстве, совершенном в 1945 г. в селе Усиро. Японские милитаристы ложно обвинили в шпионаже и вероломно казнили корейца.

Юлии Дин удалось оставить в сознании гостей мероприятия четк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о значимости освобожд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Несомненно, необходимо хранить и уважать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войны, ее траг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ведь именно такие факт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человечеству истинное лицо войны и призывают к поддержанию мира 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ю между народами.

Дмитрий Погудаев
Фото Виктории Бя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подтвердил «пятизвёздный» статус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аэропорту Инчхон повторно присвоен высший уровень «Сертификации качества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Данн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на Глобальном саммите по вопросам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Customer Experience Global Summit),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6 сентября в Инчхоне. «Сертификация качества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ветом аэропортов в 2019 году для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служивания клиентов 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аэропорт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ей аэропортам присваиваются от одной до пяти звёзд по аналогии с гостиницами. При этом учитываются восемь критериев, включа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одход к клиентам, каче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я, внедрение инноваций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между службами аэропорта. Впервые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получил высшую оценку в сентя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н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ым в мире «пятизвёздочным» аэропортом.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New York Times: Лидер КНДР может посетить Россию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может посетить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Россию и встретиться с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Об этом пишет 4 сентября газета New York Times со ссылкой на неназван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и союзных стран. Вероят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приеде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на поезде, а его встреча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состоится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с 10 по 13 сентября в кампус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 острове Русский. New York Times пишет также, что делегация из примерно 20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ключая ответственных за безопасность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прибыл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 ещё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ч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ездки туд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Владивостока Ким Чен Ын побывает на космодроме «Восточный», тем более,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быть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в передовых российских технологиях производства спутников и атомных подводных лодок. Между тем, в Совете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лого дома отказались подтвердить данное сообщение, напомнив лишь о наличии данных, подтверждающих, что Россия 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ведут переговоры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военной области.

Оппозиция РК против сброса воды с АЭС «Фукусима»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несмотря на оправданные опасения, относится к народу как к объект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Об этом заявил 4 сен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оппозицион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его председатель Ли Чжэ Мён, комментируя сброс воды с японской АЭС «Фукусим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е только соседние страны выражают протест против сброса воды в море, но и жители самой Японии не согласны с происходящим. При этом он задался вопросом о том, какова позиция РК, которая столкнётся с наибольшим ущербом. Председатель партии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не использовать выражение «загрязнённая вода», заменив его на «очищенная вода». Ли Чжэ Мё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должен защит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народа и суверенитет страны в территориальных водах, полностью выполнив свой долг в качестве президента. По его словам, власти должны потребовать от Японии прекратить сброс воды, направив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запрос в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рибунал по морскому праву.

2 октября объявл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ходным днё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фициально объявило 2 октябр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выходным днём,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жители страны смогут отдохнуть шесть дней подряд – с четверга 28 сентября по вторник 3 октябр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выходной соединяет выходные в связи с осенним праздником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с 28 сентября по 1 октября и День основа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3 октября. Выступая 5 сентябр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Хан Док Су напомнил, что длительные выходн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росту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Он призвал руковод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создать сотрудникам вс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лноценного отдыха, а также разработать меры по стимулированию потребления и оживлению местног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рынка.

В РК готовится пенсионная реформа

При сохранении нынешних темпов старения населения уже к 2055 год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енсионном фонде РК не останется денег. В этой связи финансовый комитет представил план пенсионной реформы, который позволит перенести данный срок на 2093 год. Для этого предложено увеличить пенсионные отчисления, повысить возраст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и улучшить уровень доходности фонда. Эксперты комитета считают, что размер пенсионных отчислений необходимо поэтапно повысить с нынешних 9% до 15% от заработка. Возраст выхода на пенсию должен превысить 66 лет. До истечения срока работы нынешн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енсионные отчисления должны быть увеличены на 1,8%. В целях повышения доверия к пенсионной системе предложено на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м уровне закрепить гарантии по выплатам пенсии. Пла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ключение в период участия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енсионной программе срок беременности и ухода за младенцем, а также службы в армии.

Перевозки пассажиров между Тонхэ и Владивостоком возросли в 176 раз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аром Eastern Dream, курсирующий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им портом Тонхэ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и российским Владивостоком перевёз 15.306 пассажиров. Как сообщили 1 сентября в Управлении морского и ры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это в 176 раз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когда было перевезено лишь 87 пассажиров.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между двумя портами было перевезено 19.429 тонн грузов. Это в 145 раз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RKI)

Активисты «Сахалин Ханин» решили поддержать корейцев из районов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недавно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участвовать в общегородских и 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для поддержки диаспоры, м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едь одна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организации - это объединение и поддержка райо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этому решение об участии в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было принято единогласно.

Благодаря тес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м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сообществ в г. Поронайске, пгт. Смирных и поселке Восток команда активисто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ыехала в эти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М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Дне города в Поронайске, в Дне села в Смирных, подготовили и провели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е вызвали огромный интерес у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и паден, дегустация лапши,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в исполнении Со Марины и У Михаила,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классы от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Нас поддержала Федерация тхэквонд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ФТ), выступив с показате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в Поронайске. В Поронайске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перво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были также вручены в подарок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 Я под огромным впечатлением! Впервые участвую в таком мероприятии, на моей памяти таких программ в Поронайске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Решил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мастер-классе «корей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узнала много нового. Мы привыкли называть костюм «чогори», а здесь оказалось, что надо говорить «ханбок». Дегустировали лапшу-рамен, очень необычный вкус! А музыкальные номера, молодые артисты такие красивые, слышать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которые звучат со сцены на всю площадь! До слез проникновенно! Подпевали, конечно! Поронайск надолго запомнит этот праздник! Почему бы таких программ! Спасибо общественникам, всем, кто приехал! - поделилась жительница Поронайска Ли Зоя (62 г.)

А вот впечатления Светланы Ким, ведущей кулинарных мастер-классов «Сахалин Ханин»:

- Не ожидала такого интереса со стороны участников, всегда думала,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ими



блюдами никого не удивить. А люди с огромным интересом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многие пробовали делать сами, но что-то не получалось, а кто-то делал по рецептам в интернете, но вкус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блюд заметно отличается.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й формат, когда можно общаться с каждым участником.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оронайске был проведен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янсе, для дегустации было роздано 300 пянсе и 150 рамена (лапша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в стаканчике.

Тепло приняли команду активистов «Сахалин Ханин» и в Смирных. Здесь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ся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паден двух видов.

- Благодар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с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лучилось большое мероприятие. Аутентичная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конечно, никого не оставит равнодушным, а мастер-классы творче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Хангыль» помогли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ор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яркую и самобытную. Надеемся на дальнейш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пасибо «Сахалин Ханин», что откликнулись на просьбу и приехали, - поблагодарила активистов Анжела Пак, представ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А уже 16 сентября команда «Сахалин Ханин» отправится в п. Восток на празднование Дня рождения села.

(Наталья Ю, Анжела Пе)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МООСК ЮС «Сахалин Ханин»)

Учителя Южной Кореи провели масштабные акции протеста

"День, ког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остановилось" – та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МИ назвали понедельник 4 сентября, когда в самых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вышли на демонстрации протеста десятки тысяч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школ начальных классов, что привело к отмене уроков в значительном количест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оводом для акции стали день памяти в честь молодой учительницы, которая в июле покончила с собой на рабочем месте, не выдержав давления со стороны родителей.

В понедельник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Южной Кореи на улицы вышли десятки, если не сотни тысяч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младших классов. Поводом стал 49-й день со дня смерти молодой 23-летней учительницы, которая в июле покончила с собой под давлением некоторых особо "активных" родителей учеников. У корейских буддистов считается, что 49 дней после смерти душа находится на Земле, после чего уходит в Нирвану, а потому это был своего рода день прощания, который превратился в день протеста и борьбы за свои права. За два дня до этого, в субботу, 2 сентября, в Сеуле собрались около 200 тысяч учителей по этому же поводу.

Несмотря на угрозы властей, включая министра образования, которые пообещали, что для тех педагогов, которые в понедельник возьмут отпуск за свой счет, последуют жесткие санкции, многие учителя не боялись угроз, не выйдя на работу, примкнув к демонстрациям и пикетам. Самый крупный из них прошел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д комплексом парламента страны в Сеуле, где было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тысяч участников.

Учителей редко относят к самым активным общественным группам, но тут все выглядело иначе. Смерть молодой девушки-учителя стала лишь спусковым крючком, который прорвал плотину недовольства и негодования.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учителя в Корею находятся подчас под очень жестким прессингом со стороны родителей, которые могут звонить педагогам даже поздно ночью, выясняя, "почему

моему сыночку/дочке плохую оценку поставили" и пр. При этом сами учителя в Корею находятся подчас в положении слабого, так как практически ничего не могут сделать со школьниками, которые сознательно и с вызовом нарушают дисциплину, мешают проведению уроков и пользуются безнаказанностью.

В Корею с ее конфуцианскими традициями профессия учителя долгое время считалась одной из самой уважаемых и почитаемых, до сих пор хорошо известна древняя поговорка: "Ученик не смеет наступить даже на тень учителя!" Однако, как видно, все это уже далеко в прошлом. Вот о своем бесправном положении, которое невозможно уже терпеть, и хотели заявить педагоги. Такж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за эти 49 дней со смерти молод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ы по стране покончили с собой еще три учителя. Точные причины смерти выясняются, но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они тоже не справились со стрессом и с давлением на работе.

По итогам акции, которая получила огромный общественный резонанс и получила поддержку со стороны большого количества обычных гражда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заявило,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имет меры. Так,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сформировали специальную группу, задачей которой станет защита педагогов от обвинений со стороны родителей в жестоком обращении с детьми и обеспечении права на образование. Обещано, что отныне общаться с учителями родители будут иметь право только в рабочее время, а содержание всех разговоров будет записываться. Как самих учителей, так и директоров школ обещают наделить широки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т им немедленно удалять с уроков и наказывать тех учащихся, которые мешают проведению занятий либо демонстрируют открытое неуважение к педагогам. Также, в ведомстве отметили, что вопреки первоначальным угрозам никто из участников акций не будет наказан.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199(9144)

1000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во дворах обустраивают и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 повышения качества и комфорта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обсуждался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роить их будут как за федеральные, так и собственные средства бюдж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Уютный и комфортный двор сложно представить без детской площадки. В то же время важно, в каком состоянии находятся игровые пространства для детей.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на детских игровых площадках все было аккуратно, красиво и – самое главное – безопасно для детей. Поэтому, помимо ремонта действующих площадок, необходимо запустить программу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ых. Это будут как небольшие площадки во дворах, так и крупные со всевозможными развлечениями в жилых микрорайонах и в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ах. Так как этот вопрос напрямую влияет на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людей, я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максимально пойти навстречу жителям и разработать комплекс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заложив под нее необходимое бюджет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мках разработа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бустройства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на островах их разделили на три вида.

– Маленькие внутривдворовые площадью до 85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малышей до 3 лет и находятся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от дома. Они создаю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1000 дворов» и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Активные жители тоже участвуют в обустройстве таких площадок с помощью территор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инициативного бюджетирования. Мы готовы удовлетворить заявку буквально каждого многоквартирного дома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такой площадки, если жители или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готовы взять ее на баланс,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К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торой тип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 комплексные игровые площадью от 300 до 1500 «квадратов» – обустраивают в границах жилых районов. Гулять здесь будет интересно как 3-летним малышам, так и остальным возрастным группам детей, включая подростков. Площадки должны включать в себ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зоны для отдыха, игр и спорта, как детей, так и взрослых. Такие пространства будут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ся за счет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Главным условием их создания является обязательство со сторон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ринять игровой комплекс на свой баланс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в должном состоянии. Ведь только так можно гарантировать, что даже спустя 3-4 года эксплуатации площадка будет содержаться должным образом, останется чистой и безопасной.

С помощью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обираются обустраивать третий вид площадок, которые располагаются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территориях.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учать за счет федерального конкурса «Малые города и исторические по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программы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запущенно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аспорядился увеличи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городов и сел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ЖКХ разрабатывает новый стандарт размещения детских площадок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н призван обеспеч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всех детей в пространствах для игр и занятий спортом,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игровых площадок, избавить от опас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с истекшим сроком эксплуатации, обеспечить надлежащее содержание.

Сахалин привлекает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врачей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Каждый день врачи из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принимают пациентов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Эта практика позволяет людям оперативно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узкого профиля, не выезжая за пределы своего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Списки на приемы формируются заранее – пациенты записываются через контакт-центр 1-300 или получают направление у лечащего врача.

В составе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Их состав сформирован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кадрам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России. Задачу укомплектовать кадрами мобильные бригады без «ог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больниц и поликлиник региональному минздраву постав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ведомство успешно справилось с этой работой.

Ревматолог Евгений Жолобов переехал на Сахалин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три месяца назад – на старте проекта. Постоянные разъезды 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пациентов его не пугают, доктор чувствует важность своей работы и хочет помогать пациентам со слож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суставов.

– В день мы принимаем 20-25 человек. Ревматолог – редкая специальность, та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есть только в штате больших больниц, поэтому выездная практика так важна для пациентов. Мы осматриваем, консультируем, диагностируем патологии и назначае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лечение. Чаще всего приходят пациенты с суставным синдромом неясного генеза. Терапевт или хирург не может установить диагноз и требуется специфическая диагностика состояния. Обращаются с такими проблемами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пожилые люди, но и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можно встретить развивающиеся заболевания, которые важно вовремя обнаружить и приступить к лечению, – рассказал Евгений Жолобов.

Пациенты практикой выездных бригад довольны. Многим удалось найти решение своих проблем со здоровьем.

– Мне необходимо регулярно посещать ревматолога. Раньше приходилось ездить из Макаров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Дорога не очень долгая, уже привык, но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осле запуска проекта стало намного проще. Ожидание в коридоре не больше 10 минут, врач уделяет много внимания каждому пациенту,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о имеющейся проблеме и способах ее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бота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фессионал, мне его рекомендации очень помогли, – поделился своим мнением пациент Макаровской ЦРБ Максим Сацык.

Вместе с ревматологом к макаровчанам приехал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В списках специалистов мобильных бригад встречается больше 10 профилей, среди них – дерматовенерологи, эндокринологи, онкологи, оториноларингологи. Их расписание формируется каждую неделю. При большом потоке пациентов, выезды планируются на два дня, чтобы принять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жителей.

Отмети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меч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й баланс между прибывшими на работу и уволившимися врачами. Так, в начале 2023 года в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ях были трудоустроены 2612 врачей, на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 уже 2638. К концу года в планах привлечь еще более 50 докторов. Добиться этого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запуску проекта по привлечению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 ориентирован именно на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запросов медицинской отрасли.

На Сахалине выставили шедевры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В литературно-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Чехов и Прянишников: четыре шедевра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крупнейш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музея договорился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мы запускаем новый проект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Он позволит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знакомиться с картинами из собраний главного музея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оссии –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Та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у сахалинцев не было уже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века. И я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руководство галереи за поддержку нашей инициативы.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очень важно ощущать себя частью культур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нашей страны. Приобщаться к шедевра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е покидая остров. Желаю всем приятных впечатлений от выставки и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мы сможем знакомиться с работами из фондов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напомнил о большой работе,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проводится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буквально в этом же зале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сахалинские художники обратились с просьбой о выделении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мещений для мастерских и выставок.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 регионе были созданы новые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а – «РОСТ» – в бывшем здании «Ростелекома», где размещается галерея и мастерские молодых мастеров кисти и карандаша, и «Город художников» – новая галерея в «Сити Молле», там обустроили мастерские для именитых авторов – членов Союза художников Росси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так называемая Сахалинская Третьяковка. Выставочные залы, в том числе именно для экспонатов из крупнейш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музея, будут открыты в бывшем здании «Современника», неподалеку от ККЗ «Комсомолец», который преобразится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акже выставки сахалинских художников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иобретения их картин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и в здании нового аэропорта.

– Для меня большая честь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открытии выставки. Очень приятн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создается по сути экосистем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как жителям региона, так и гостям почувствовать уникальность этого места, насладиться атмосферой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вод для этого – точки притяжения, которыми являются музеи, выставочные залы, театры. Весной этого года губернатор высказал намерения привезти шедевры Третьяковки на Сахалин. И благодаря слаженной работе двух наших музеев это реализовалось. Намерение развивать эту деятельность здесь в регионе входит и в задачи нашего учреждения – это выход за пределы Москвы большого искусства, чтобы его увидело больше граждан нашей страны. Желаю нам всем продолжения подобных проектов, – поделился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директо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Татьяна Шаршавицкая.

Выставка «Чехов и Прянишников: четыре шедевра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даёт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картины из собр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и перенестись в её залы, не покид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Для более полного погружения на втором этаже музея книги А. П.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изготовлены

декорации, которые воссоздают образ фасада исторического здания на Лаврушинском переулке в Москве.

Центральное место в экспозиции занял портрет Антона Чехова в исполнении Иосифа Браза (1873-1936). Художник работал над ним по заказу Павла Третьякова в 1897-1898 годах. Также вниманию гостей представлены три картины Иллариона Прянишникова (1840-1894): «Жестокое романсы» (1881), «Охота пуще неволи» (1882) и «В мастерской художника» (1890). В судьбах Прянишникова и Чехова много общего. Оба были родом из семей торговцев, но оба пошли по пути искусства, а не коммерции. Выставка будет доступна для посещения до 5 ноября.

Отмети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с Сахалински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началось в 1997 году.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Игоря Фархутдинова в регионе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выставка факсимильной русской графики XIX – начала XX в. из собр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В том же году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ыставка русского рисунка из собр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Третьяковской галереи. И вот спустя четверть век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озобновилось.

Современную начальную школу для 400 ребят открыли в Шахтерске

В новом здании оборудовали учебные классы с инновационными методическими комплексами, лаборатории для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большой актовый зал.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и смогут изучать здесь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проводить перемены на скалодроме.

Современное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в Шахтерске было необходимо. Прежняя СОШ №1 1956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признана аварийной и подлежит сносу, а в действующую СОШ №2 перевели учеников 5-11 классов.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и из обеих школ сегодня начали учиться в новом просторном здании.

С началом учебного года в новой школе юных шахтерцев поздравили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и министр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 В этот особый день, хочется сказать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тем взрослым, которые своими усилиями создали этот замечательный праздник.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команда строителей, эт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оллектив школы, родители.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что единой командой выступили при подготовке эт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го праздника, который сегодня свершился. Я верю, что школа стан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рким и светлым домом для наших детей, – сказала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 Хочу сказать спасибо каждому из вас: строителям, которые построили школу, вложили душу. Учителям, которые с такой любовью расставляли учебники по полкам, украшали классы, готовясь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Родителям, которые контролирова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ереживая за своих детей. Мы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построили эту школу для наших ребят, – добавил Алексей Колеватых.

Напомним,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в ходе рабочей поездки в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инспектировал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ажнейшего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объекта. Подрядчик допустил отставание от графика из-за того, что потребовалис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требовал бросить все силы на то, чтобы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и учились в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е.

В новой школе для детей предусмотрены два кабинета информатики, кабинеты для занятий музыкой и искусством, библиотека, спортивный зал, столовая.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теперь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в современном актовом зале на 430 мест.

У младшеклассников появились игровые комнаты, скалодром, отдельные спальни для мальчиков и девочек. Ученики новой школы будут изучать азы робототехник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кабинеты психолога и логопеда, сенсорная комната. Учреждение приспособлено для ребят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 оборудовано лифтом и подъемниками.

Как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школы Шахтерска Татьяна Тиунова, разделение блоков начальной и старшей школы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дальнейшей адаптации и обучении детей.

– Очень рада, что учебный год мы встречаем в новой и современной школе! Это очень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для нас. Пусть школьная жизнь будет насыщенной, интересной, наполненной новыми знаниями, успехами и победами, – поздравила Татьяна Тиунова.

Напомним, к возведению школы строители приступили в 2021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ый реализуетс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зидент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глобальной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ст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а также по вхождению России в число 10 ведущих стран по качеству общ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 сентября отметили 63 тысячи школьников, почти 6 тысяч из них – первоклассники. В новом учебном году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также школа на 300 мест в Ногликах, на 400 мест в Курильске, на Итурупе, школа-детский сад в Кировском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троена школа-детский сад в Головинно на Кунашире. Всего создано 1335 новых школьных мест.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

9월 6~8일 부산서 개최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

국내외 한인여성 360여명 참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공동으로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제22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코윈, KOWIN: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대회는 전 세계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국내외 한인여성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행사다.

22번째 올해 대회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국외 22개국 140여명, 국내 220여명 등 국내외 한인여성 3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코윈(KOWIN), 새롭게 온(ON)다'란 주제로 국내·외 참가자들은 기초강연, 세계여성 지도자 토크쇼 등을 통해 한인 여성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한다.

6일 오전 기초강연에서는 일본에서 기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레이더랩 대표가 '연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40세의 나이에 스타트업에 도전, '레이더랩'을 창업한 본인의 경험과 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차세대 한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레이더랩은 전철 내 치한 정보, 불법 촬영, 노출 등 다양한 피해 정보를 사용자가 등록하고 열람, 공유하는 '치한 레이더' 서비스와 사용자들 간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한다.

6일 오후 '글로벌여성리더포럼'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고 있는 한인여성들의 활약을 공유하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의견을 나눈다.

경제·경영 1분과는 '변화하는 여성 일자리 환경과 세대별 필요한 역량 및 과제'를 주제로 민세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주요 20개국 엠파워 얼라이언스(G20 EMPOWER Alliance) 한국 대표 등을 맡고 있는 허금주 교보생명 국제협력담당 전문위원, 부산 지역에서 통합형 장애인 인사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김민지 브이드림 대표 등 차세대 여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문화·예술 2분과는 '한국문화(K-Culture)를 이끄는 힘, 한인여성의 힘(K-Woman Power)'을 주제로 박은하 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노가영 콘텐츠미디어 전문가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7일 오전 활동 분야별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경제·경영, 문화·예술, 과학·교육 등 같은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여성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재외한인 여성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대회에는 캐나다 한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포트무디 청소년 교향악단' 단장 겸 지휘자를 맡아 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혜정 단장, 사할린에 거주하는 한인의 역사를 다룬 '내가 바다가 될 때' 작품으로 문학상을 수상한 최옥순 작가, 2023년 에티오피아한인회장으로 선출된 박형숙 회장, 재미한인과 학기기술자협회 뉴욕회장을 역임(2020~2021년)하고 노인성 치



지난 2021년 8월 30~3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20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대회' 모습 (사진 정명렬)

매 관련 연구로 전 세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임은주 박사 등이 참가한다.

여성가족부는 국내외 한인 여성의 교류협력 강화와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한 한인 여성에게 총 10점의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서적 번역출판, 2017~2018년 탄자니아 우물과 학교강당 건축 지원 등에 기여한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이윤희 세계한민족여성재단 부이사장과 태국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장학 및 후원 활동 등 한인 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한 조윤정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태국 지역본부 담당관을 비롯해 홍콩 박시원, 스페인 백영자, 독일 윤옥희, 체코 윤현아, 미남부 이정순, 캐나다 장남숙, 중국 전경숙, 뉴질랜드 허경애 등 10인이 표창을 받는다.

또한 각 지역에서 코윈을 대표해 한인여성의 교류를 위해 힘써온 현(現) 제10기 지역 담당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향후 2년간 코윈을 이끌 차기 지역담당관을 임명하는 위촉식을 진행한다. 11기는 신임 15명, 연임 7명 등 총 20개국 22개 지역담당관이 선임됐다.

특히 올해 대회는 6일 오전 부산시 특별세션을 통해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 전세계 한인 여성들의 지지를 한데 모으는 시간도 갖는다. 부산시는 특별세션에서 2030 부산월드엑스포 개최 유치를 위해 참가자들에게 부산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면서 엑스포 개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고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관광 도시 부산의 맛과 멋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영화의 전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하우스 등 부산지역 대표 명소를 둘러보는 지역문화 탐방도 7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해 대회를 통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국내외 한인 여성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차세대 지도자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한인 여성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해나가는 한편, 따뜻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신문)

[우리말로 깨닫다]

한국어와 썰렁 주의보

이 글을 읽기 전에 상당히 추위질 각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직 늦여름이니 이 정도 썰렁함은 괜찮을 듯도 싶습니다. 글을 시작하기 전에 썰렁 주의보를 내립니다. 물론 이 글을 읽으면서 킁킁거리실 분의 모습도 기대합니다. 킁킁거리셨다면 젊은 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언어학교재는 주로 무겁습니다. 내용도 무겁고 부피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언어학개론 수업 시간은 흥미롭다기보다는 견디기 힘든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겁다는 눈꺼풀의 힘을 느끼는 시간이지요. 이때 선생님들은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패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 눈높이 맞추기에 실패한 겁니다.

반어의 수업을 할 때는 종종 산토끼의 반대말을 물어 봅니다. 90년대 초에 유행한 문제입니다. 몇 개나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집토끼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은 끼토산을 이야기합니다. '끼토산 야기도 로데어 나느가'라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부르려면 속달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바다토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산의 반대를 생각해낸 겁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죽은 토끼를 생각했다면 약간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실력입니다. 과학을 좋아하면 아마도 알칼리 토끼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은 경상도 사람이 맞힐 수 있다는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비산' 토끼입니다. 쌍시옷 발음이 어려워서 쌍토끼, 비산 토끼를 '산 토끼, 비산 토끼'라고 말할 겁니다. 상당히 추워지셨나요?

어떤 가족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모두 살았다고 하는 80년대 문제가 있습니다. 아빠는 제비였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답은 날나리입니다. 예상하셨나요? 큰아이는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동음이의어로 만들어진 농담이지요. 그럼 막내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답은 바로 '떨 떨어진 아이'였습니다. 어이없는데 재미는 있으셨나요? 무서운 농담이기는 하지만 동음이의어나 은어를 소개할 때 쓸 수 있는 예입니다.

각 언어의 음운적 특징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수수께끼는 모르다에 해당하는 외국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설명하자면 '모르다'라는 어휘가 있는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어, 일어, 영어 등에 모르다는 단어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알지 않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일본어로 모르다는 무언가요? 물론 년센스 퀴즈입니다. 답은 아리까리입니다. 약간 발음도 일본어식으로 해야 맛이 납니다. 프랑스어는 알송달송입니다. 이때 발음을 '알송달송'처럼 발음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독일어는 애매모호입니다. 이때의 발음도 '애매모호'처럼 독일어 분위기를 내주어야 합니다.

우간다말은 긴가민가입니다. 사실 아프리카말은 잘 모르는데 영화에서 본 정글 사람의 느낌으로 대강 흉내를 내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중국입니다. 중국어에서는 일단 말로 안 하고, 몸짓으로 보여줍니다. 고개를 한쪽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압니다. 바로 '가우퐁'입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성조 흉내를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리까리, 알송달송, 애매모호, 긴가민가, 가우퐁이 모두 잘 모른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이 발음과 어우러져 재미를 줍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언어학 유머가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에서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이 무어나는 썰렁한 농담을 보고 예전의 농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썰렁한 이야기지만 노력은 가상합니다. 저는 수업이 재미있기 바랍니다. 언어학 수업이 제가 재미있는 만큼 학생들도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잠,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인천 엄마'입니다.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저의 내공이 상당히지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스바보다러시아어권지원센터, 한민족 여행 테라피 프로그램 진행

[세계뉴스통신/=김종진 기자] 그라드코리아래저(GKL) 공헌재단은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긴 고려인, 이주여성, 사할린동포, 북한이탈주민들의 모국 정착을 돕기 위해 '한민족 여행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스바보다러시아어권지원센터는 지난 2일과 3일 주말을 이용해 고려인 가족 40여 명이 함께 연천 푸르내마을 농촌체험과 비무장지대(DMZ), 재인폭포, 임진강 수상철리, 전곡리 선사유적지 등을 방문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여행을 통해 바쁘고 고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신선한 공기와 자연을 만끽하고 오이피클만들기, 비누만들기 체험 등을 하면서 모두 즐거워했다.

고려인 3세 김 류드밀라 씨는 "말로만 듣던 휴전선 대포전망대를 방문 체험하니 분단의 아픔이 실감이 나고, 어서 속히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남북이 속히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기를 빌었다.

한편 스바보다러시아어권지원센터는 러시아어권 동포 및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힘겹게 살면서 자치 소홀해 질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한국어클래스, 실버대학, 수채화, 민화그리기, 음식 아카데미,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뉴스통신)



스바보다러시아어권지원센터가 고려인 가족 40여 명과 함께 '한민족 여행 테라피'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스바보다러시아어권지원센터)

이모저모

(2편의 계속)

Бой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ри освобождении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оссоздали на Холмском перевале

У 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Холмском перевале состоялась масштабная историческая театрализация событий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Рубежи-1945», приуроченная ко Дню Победы над милитаристской Японией и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Об этом в своем Telegram-канале сообщил мэр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митрий Любчинов.

Ее подготовили юнармейцы, холм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юные друзья пограничников, специалисты отдел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и пейнтбольного клуба «Oldskullz».

Во врем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был частично воссоздан бой подразделений 113-й стрелковой бригады, которые после штурма города Маока (ныне Холмска) 20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начали преследование отступающих японских частей по дороге Маока — Тойохара — Отомари.

9월 16일

〈2023-국민 마라톤〉에 сахалин 주민들 달린다

9월 16일(일) 〈2023 국민 크로스컨트리〉전국 달리기 날에 сахалин주도 합류해 대회를 개최한다. 올해 체육행사 참가자들에게 6개의 코스 가 제시된다고 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개막 행진은 오전 9시30분에 열리고, 10

시에 '러시아는 나의 역사'역사기념 박물관 앞에서 첫 출발이 진행된다. 연령 제한이나 훈련 수준의 제한 없이 누구나 달리기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은 500m, 1km, 4km, 6km, 8km, 12km 코스들 중 하나를 선택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2023- 국민 마라톤〉대회 참가 등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9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참가자들에게는 9월 11일-15일까지(점심 휴식시간 없이) '스파르타크'경기장에서 가슴 번호표를 지급하며, 등록 시 참가를 위한 의사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Сахалинцы пробегут «Кросс нации-2023» 16 сентябр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16 сентября присоединит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му дню бега «Кросс нации-2023».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 физкультур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ложат шесть дистанций, сообщил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истерстве спорта.

Парад открытия состоится в 09:30. Старт первому забегу будет дан от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10:00. В забег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се желающие —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и уровню подготовки нет. Легкоатлеты смогут выступить на дистанциях 500 метров, 1, 4, 6, 8 и 12 км.

Регистрация на «Кросс нации» будет идти до 15 сентября по ссылке. Нагрудные номера участникам будут выдавать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11-15 сентября с 10:00 до 17:00 (перерыва на обед нет), для этого нужно предъявить медицинский допуск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30주년 맞아 문예콩쿠르 공모

2023년 12월 10일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개원 30주년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를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сахалин 주민 및 러시아 국민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한국어, 러시아어)
- 공모주제: 한민족의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주제는 '한국 교육원이 내 삶에 준 변화', '내 삶에 한국어(한민족문화)어가 심어준 변화', '한국 문화의 매력'
- 공모기간: 2023년 11월 중순까지.
- 발표 및 시상식: 2023년 12월 8일(금)
- 시상: 상장과 상품
- 주최: 새고려신문사, сахалин한국교육원, сахалин주한국어교사협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또는 vika131065@gmail.com 로 보내주시거나 신문사 사무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콩쿠르조직위원회

Конкурс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В рамках проведения Года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и в честь 30-летия со дня основания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совместно с Ассоциацией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 Р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тему «Язык - это путешествие в новую жизнь».

Работы могут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русском и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Автор должен рассказать читателям о том, как из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зменило его жизнь и характер; какую роль в жизни автора сыграл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ка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привлекают и раскрывают загадку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ноября 2023 г. Необходимо указать тему эссе,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учащимся),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участник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 адресу: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ил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по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vika131065@gmail.com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024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46 руб. 9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